그리스도인의 심력(心力)

(눅22:7-23)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심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력'

여러분, 강 영우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때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누님을 잃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맹인 소년 가장이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 지는 상상이 가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뚫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시게 되고, 졸업하신 뒤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유학하시면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시 대통령 때, 국가 장애인 정책을 위한 백악관의

정책자문차관보가 되셔서 역할을 하시고, 로타리클럽의 회원이 되셔서 봉사하시고, 로타리클럽 75주년 창립기념일에 75명의 봉사의 촛불을 뽑는데 그 중의 한 명으로 선정이 되시고, 또 유엔 세계장애위원회의 부의장으로 활동하시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에서 7억 명의 전 세계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면서 2006년에는 루즈벨트 홍보센터에서 127명의 영웅을 선정하는데 그 중의 한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한 열 가지의 교육원리가 그 내용입니다.
그 교육원리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역경을 기회로 삼아라', '장기적인 목적을 선정하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라' … 등.
그런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열 가지 교육원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심력입니다, 심력, 마음의 힘.
성공하는 삶에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력, 심력, 체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심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다고 모두에게 다 심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마음의 심력이 길러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장애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 승리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얘기에요.
'불구하고'라는 것은 벌써 시각장애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선교사를 만나 연세대학을 들어가고, 연세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심력, 마음의 힘.

그리스도인의 심력,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될 심력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돈 10억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심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심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마음의 힘, 하면 의욕 열정 에너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의욕이 뭡니까? 뭔가 목표물을 찾아내려는 의지에요.
열정이 뭡니까? 그 목표물을 끊임없이 향하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에 대해 다 열정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그렇게 목표물을 찾고 집중할 수 있는 열정과, 그 집중도에 걸 맞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이게 다 심력입니다.
움직이려면 마음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욕과 열정과 에너지가 합쳐져서 심력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심력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의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심력이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약하다, 어제 햄릿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인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이 자식을 향할 때는 그 어떤 남자의 힘으로도 어머니로서 발동되는 심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곰이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들은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자고 하면 몸뚱이가 납덩이에요, 납덩이.
비실비실 천근만근 되는 몸을 끌고 겨우 끌려갑니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양처럼.
그런데 주말에 낚시를 가게 된다, 그 사소한 준비물까지 챙겨가지고 가는 모양을 가만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아내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해가는 모든 준비물 중의 10분의 1도 준비할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심력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에너지가 발동되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대상을 향하여 발동되게 돼있습니다.

강 영우 박사님의 책을 이렇게 가만 보면,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시골소년이, 그것도 중학교 때 실명하게 되어서 유엔의 장애인위원회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얼마나 심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분의 일생을 읽어보면, 열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교육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심력이에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마음의 심력이 강한 사람이겠는가? 초인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의욕과 열정과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하는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상태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열정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는 열정은 없어요, 천국을 향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듣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마음에 힘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의 힘은 다 다른 대상을 향하여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사람도,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에 의욕도 열정도 에너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지고 오셨다는 천국에 대해서 열정 제로, 의욕 제로, 그곳으로 마음이 가닿기를 원하는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력 제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에요.
이 상태를 아시고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내일 돌아가시기 전,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깁니다.
기억이 뭡니까? 마음의 의식 속에 담아두고 그 담아둔 내용을 끊임없이 거듭해서 끄집어내서 상기하라는 얘깁니다, 떠올리라는 얘기에요.
마음에 담아두고 떠올리는 것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 핵심은 19절과 20절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나를 기억하는데 왜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십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죽으심을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연결을 시키십니까?
먹으라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먹으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왜 기억한다는 마음의 심리적인 작용과 기능을 먹는 것, 떡과 포도주로 연결을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밥과 보리차 정도에요.
즉,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유월절 떡이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떡과 포도주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일치시켜버리십니다.
왜 먹는 것과 연결을 시키셨을까요?
마음이 주님의 죽으심을 먹지 않으면 기억한다는 것이 곧 먹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그 먹음을 통해서 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안에 다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김장을 할 때죠? 김장은 배추가 죽은 겁니다, 죽은 배추에요,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새우젓이 들어가지요? 새우젓은 새우가 죽어서 새우젓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벼가 죽은 것이고, 고기를 먹어도 소나 돼지가 죽은 것이고, 다 죽음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으심을 먹을 때 우리 마음에 심력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심력이 생기고, 아빠가 낚시를 향하여 심력이 생기고, 사업가가 사업을 향해 심력이 생기는 것처럼, 도대체 주님의 죽으심을 먹을 때 어떤 심력이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먹는 겁니다, 먹는 방법은 내가 죽었다고 그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건데, 이렇게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어코 내 마음이 느끼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심력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킨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이라는 게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상태로 살던 자들이 해방을 얻어서 광복절과 같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 식사에요.
그런데 그 해방이라는 게 그냥 해방을 위한 해방입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상태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갈 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광야로 나가서 그냥 해방되었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상태라는 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거나 내 죄 값이 멸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값이 멸해졌으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돼서 자격이 생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값이 없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천당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력이 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아무런 심력이 없어요.
그저 심력이 발동되는 것은 이 세상 돈을 향하여 열정이 생기고,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심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이 임하지 않았느냐?
성찬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성찬식을 1년에 두 번, 1년에 네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방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듯이 그렇게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기억은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주님의 죽음을 먹음을 통하여 심력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때와 자식을 사랑할 때와, 강 영우 박사처럼 내가 박사학위를 받겠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에 열정을 가질 때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행복과 성취감과 만족과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력이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새 언약을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 모세가 번제와 화

목제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이고 구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 언약이라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향해 뿌려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강 영우 박사처럼 열 가지 교육원리를 지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약속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이 먹는 겁니다.
마음이 먹을 때 유월절의 구원과 연결되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먹을 때 심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고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욕과 열정과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일은 다 하나님의 심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떡과 포도주로 연결하십니까?
먹으라고.
왜 먹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심력이 생기니까.
무엇을 향한 심력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심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력이 생길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임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내 마음은 하늘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이 기적적인 역사와 은총을 오늘도 경험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력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먹고 마실 때 생기는 것이고, 그것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질 것이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다 충족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열정과 에너지가 없다면 구원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이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한 분을 향한 우리의 심력이 날마다 한없이 강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